

외환리포트

전일동향

전일대비 2.90원 상승한 1,301.90원에 마감

31일 환율은 전일대비 2.90원 상승한 1,301.9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2.30원 하락한 1,296.70원에 개장했다. 간밤 은행의 불안 심리 완화로 하락 출발한 환율은 오전 중 중국 경제지표 호조로 달러-위안이 레벨을 낮추자 1,280원대 후반으로 급락했다. 다만 위안화 약세가 낙폭을 줄이자 환율은 반등했고 1,301.90원에 마감했다. 장중 변동 폭은 12.9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79.60원이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296.70	1302.00	1289.10	1301.90	1295.4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978.46	980.51	968.00	977.98

전일 유로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416.34	1420.33	1406.38	1411.19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1.29	-5.4	-12.55	-25.4
결제환율(수입)	-0.94	-4.46	-11.22	-22.9

*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로 당일자 청약시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

* 해당월 말일(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기준

*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ksure.or.kr/rh-fx/index.do>)에서 확인가능

금일 전망

역내외 매수 우위에...1,310원 회복 시도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2.40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301.90) 대비 4.25원 상승한 1,303.75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위험선호 회복 분위기에도 G2 갈등 확대 및 결제수요 우위에 상승이 예상된다. 미국 2월 PCE 가격지수는 전년대비 5.0%(1월 5.3%), 근원 PCE 물가지수는 전년대비 4.6%(1월 4.7%)을 기록했다. 이처럼 인플레이션이 다소 완화된 흐름을 보이면서 미국채수익률은 하락했고 미국 주식은 상승하며 위험선호 분위기를 일부 회복했다. 하지만 반도체를 타겟으로 한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부딪치며 위안화를 중심으로 원화, 호주 달러 등의 동반 약세 기대가 커지면서 금일은 환율 상승 분위기가 우세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지난 주 분기말임에도 수급상 수출업체 네고와 비등한 흐름을 보였던 결제수요가 유입되면서 금일 환율 상승에 압력을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분기말 네고물량 이월에 대한 경계감 등은 상단을 경직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301.00 ~ 1311.00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6840.06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4.25원 ↑
	■ 美 다우지수 : 33274.15, +415.12p(+1.26%)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01.92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3513 억원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